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6. 음녀와 큰 성 바벨론

2014. 08. 2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일곱 대접, 곧 일곱 재앙에 대한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재앙인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 그곳이 어둡게 되었다고 한 그 사실을 자세히 계시하고 있는 17장과 18장의 계시 중에 17장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 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 목사님, 이제는 17장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17장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된 어떤 실체에 대하여 계시한 것 같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그것이 무너진 바벨론의 정체라고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사실을 공부하도록 하지요.

답: 그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6장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19장까지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라는 표현은 옛날식이지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창녀입니다. 이 여자가 치장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차림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에는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째가 2장 두아디라교회 시대에 등장한 이세벨입니다. 다음이 12장에 해를 옷 입은 정숙하고 정결한 여자입니다. 셋째가 바로 17장의 창녀입니다. 내용상으로 이세벨과 17장의 창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2:20에 보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피어서 음행하게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자신이 창녀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녀들을 끌어들이 음행하게 투쟁이 노릇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1을 읽었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입니다.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이 일곱 재앙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했군요.

답: 예, 많은 물의 뜻은 15절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도록 합시다.

[계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감사합니다. 많은 물은 바다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다 외에도 큰 호수나 큰 강은 많은 물이 되지요. 사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표현이기도 합니다.

[렘51:13]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물은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장에 물이 마르게 되는 유브라데 강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을 지칭하든지 그것의 실체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이 표현은 주로 유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1에 바다와 같은 의미이고 여기 창녀는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창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창녀가 심판을 받을 당위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 그것이 2절부터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지요. 우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계17: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첫째로 거론된 것이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 창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땅의 왕들과 음행했다는 말도 아주 고차적인 상징적 표현이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답: 당연합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밝혀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먼저 3~5에서는 이 창녀의 처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며 어떤 행장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치장하고 있는지 묘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7:3~5]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먼저 이 여자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나간 광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를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행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니 광야는 교회를 표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창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세벨이 두아디라교회에서 선지자노릇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12장에서 광야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피난을 가서 양육되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를 옷 입은 순결한 여자, 곧 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즉 교회에 있는데,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예언적 상징으로 짐승은 국가입니다. 짐승이 국가를 표상하는 것은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분명히 확인한 일입니다. 단7:17과 23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는 교회라는 국가를 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국가가 교회인 그런 **조직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예언적 표상으로 여자도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인 그런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여자로 표상된 교회가 고삐를 잡고 부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색이 붉습니다. 이 색깔은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의 색깔입니다. 또 성경에서 붉은 색은 주로 죄와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을 가득히 적어놓았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짐승 자체가 참람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생김새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습니다. 바다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해놓은 형상인데 여기서는 붉은 빛으로 통일된 색깔로 등장하고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짐승의 조합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13장에서는 그렇게 등장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나름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성들이 아닌 이 짐승 스스로만의 속성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고삐를 잡고 부리는 교회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5. 목사님, 성경구절에서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요?

답: 글썄요?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계시 중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이지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6. 예,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답: 예, 4절에 여자 자체의 치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주 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아가서와 사사기에서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아3:9,10]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毳)이라.

[삿8:26]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일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러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여자는 왕으로 군림하는 교회를 뜻하지요. 이 여자의 치장은 화려한 왕의 의복을 나타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이것은 부와 사치를 나타냅니다. 보석의 종류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진주는 따로 기록하였습니다. 진주는 21장에 보면 하늘 새 예루살렘의 12 성문 재료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진주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예수께서 마태 13장에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값진 진주로 표상한 것을 의식하고 자기가 바로 그런 보화와 진주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창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렘 51:7을 반영합니다.

[렘51:7]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종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브델뤼그마톤”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사용된 말이며, “더러운 것들”의 헬라어 “아카다르타”는 신약성경에서 악한 영이나(마10:1, 12:43) 우상 숭배(고후6:17), 그리고 제의(祭儀)적인 음행(엡5:5)에 사용되었습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7. 2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51:7 말씀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음행의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그 질문의 답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14:8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지적된 말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나 여기서의 표현은 틀을 밟는 포도주가 아니고 사람이 마셔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포도주라고 번역된 말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도에서 나온 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금방 짜면 포도즙입니다. 그것을 오래두면 발효하고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즙일 때에는 순수한 진리를 표상합니다. 예수께서 만찬에서 사용하신 것은 포도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만 그것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섞이면 안 되지요. 알코올은 불순물이며 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사용하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불순물이 섞인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금잔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뜻하는 포도즙이 알코올이 되어서 변질된 것을 나타냅니다. 변질된 진리입니다. 변질되었으니 이미 진리가 아니지

만 보기에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을 빼앗은 교회 국가를 타고 있는 교회가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변질된 진리를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진리의 사상에 깊이 빠진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8. 그러면 그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답: 잔은 물 종류를 마시기 위한 그릇입니다. 여기 잔에는 포도주가 담긴 것이 확실하지요. 즉 진리를 담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변질된 진리인 포도주를 담은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질된 내용이 바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금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해지지요. 그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경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잔은 경전을 상징하는데 이 창녀가 교회를 나타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변질된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이교의 풍습을 담아서 마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9. 인간의 사상과 이교의 풍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지요?

답: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언이 지적하는 대상을 대하는데 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불교는 대승과 소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대승은 말 그대로 큰 수레를 뜻합니다. 수레가 크다는 것은 많이 실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원래 불교는 소승적이었던 것 같아요. 즉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가르치는 교법에 중심을 둔 것이기 때문에 주위환경과 문화적 영향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승은 소승 불교가 수행에 따르는 개인의 해탈에 주력하는 데에 대하여, 이타(利他) 구제의 입장에서 널리 인간 전체의 평등과 성불(成佛)을 이상으로 삼고, 그것이 불타의 가르침의 참다운 대도(大道)임을 주장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풍습을 다 용납하여 불교적으로 용해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사찰에 가면 칠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습니다. 또 도교적인 태상노군도 용납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불교 이야기를 해서 혹시 잘못된 내용이면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이교적 사상을 포용하여 마치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포도즙을 포도주로 변질시키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에 이런 사상을 용납하고 그것을 교리처럼 가르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풍습이나 문화를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더하면 그것은 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기독교는 이 포도주에 대취해서 건들거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도 못합니다. 취한 사람은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설이나 영혼불멸설, 영원 지옥설, 침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행하는 것, 여러 종교적 절기들을 소위 성자의 이름으로 지키는 것들, 성상을 만들고 공경하는 것들, 마리아 숭배, 진화론을 용납하는 것, 등등 이것들이 다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음녀는 이것들을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것입니다.

10. 그것을 왜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답: 음행에 대하여서는 두아디라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세상과 짝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었습니다.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대로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집행하고 세상의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며 왕들과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적 지위에 올려놓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1.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여 세상에 왕국으로 군림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음행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 사실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여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구를 택하십니다. 그 도구는 사람, 사건, 제도, 예언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사람을 도구로 택한 경우입니다.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셨을 때에는 민족과 국가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복음으로 이룩할 영원한 나라의 표상적 국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목적을 훼손했습니다. 그가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소위 정략결혼으로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비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 풍속을 이스라엘 국가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 후의 왕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처럼 이방의 사상과 풍속을 교회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며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것이나,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교회에 솔로몬처럼 똑똑한 지도자가 나오더니 솔로몬처럼 세상과 짝하는 일을 한 것이며 그 후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이런 오류의 포도주에 취하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복음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사상을 마치 성경의 교훈처럼 교회 안에 용납하고 가르치게 되었으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적이 아니라 정치적 권세로 임하고 있는 것도 역시 간음하는 여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한 창녀로 표상한 것이지요. 성경의 상징은 정말 절묘합니다.

12. 이스라엘 국가와 솔로몬의 행적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특히 개신 교회가 개독교라는 모독적인 말을 듣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답: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신교는 로마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로마교만하지 못하고 진리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개혁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쪽 다 계17장의 계시한 예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부디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간곡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들을 살피면 나오지만 이 창녀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했지요.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무너진 바벨론에 대하여 말할 때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들을 나눌 때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13.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 12장에 보인 붉은 용을 빼어 닮은 정신을 가진 국가를 나타내는데,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3장에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까?

답: 그것은 8~12절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피기로 해야지요.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3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에서 발전하여 자신의 색깔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지요. 짐승은 국가 아닙니까. 교회가 국가를 타고 교회가 국가를 조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짐승을 타면 그 짐승은 타고 있는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타고 있는 교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앞에 국가의 이름이 붙어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를 찾으면 되지요. 아마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할 것 같네요.

14. 예,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쉽지 않은 내용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믿음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